

윤 “한미일,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지지…신규협력 분야 발굴”

‘아세안 중심성’ 강조…한미일-아세안 협력 방향성 제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행 출발점…지역내 협상력 높여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인태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순방 2일차인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강조하는 한편, ‘아세안 중심성’에서 한미일 3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한미일은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로 참석하는 이

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 첫 다자회의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직후에 열린 만큼,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아세안 전략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이행의 출발점인 셈이다.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의 대외적 메시지로, 미중 전략 경쟁의 중심에 놓인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한미일 공통의 지지와 지원을 천명함으로써, 아세안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D)의 주요 성과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한다”며 “지난 1년간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8개 중점 추진 과제를 식별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글로벌 중추국 도약’을 목표로 인태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인태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아세안과의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인태전략의 3대 비전인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2회(2014년, 2019년) 개최한 인연을 부각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며 “이 자리에 계신 아세안 정상님들께도 친숙한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을 포함한 많은 해양국가, 많은 이웃나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며 “또한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다시 한번 인태 지역과 전 세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인도네시아 현지 유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실존적 위협이 된다”며 긴밀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제 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측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판

밍 쩡 베트남 총리, 손짜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하사날 불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리 쉐 퉁 싱가포르 총리, 사란 차련수완 태국 사무차관(대잠), 사나나 구스마웅 동티모르 총리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진 외교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종면 외교비서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등이 배석했다.

변용일기자

‘깜깜이 논란’ 광주 도시계획위 ‘공개 원칙’ 조례 통과

투기 우려·특정인 식별·업무 지장 등 5대 예외조항 뒤 외부 전문가 포함 ‘선정위’ 구성, 회의록 속기 후 공개

‘깜깜이·밀실 운영’ 논란을 낳아온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우려와 특정인이 식별되는 사안 등 5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계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인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시가 요구한 ‘비공개 원칙’과 지난달 수정안으로 제시한 ‘공개할 수 있다’는 중의적 임의 규정과 위헌성을 담보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5대 예외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의사 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또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기타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회의를 비공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공개 방식은 도계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 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

의를 작성 시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외부 구성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높이고, 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원 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운영토록 했고, 위원 위촉 평가 기준과 심의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계위 위원 선정은 시청 주무부서 국·과장을 주축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시장의 손과 발인 고위 공무원과 개발 이익의 수혜자인 건축사,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도계위”라는 뿌리깊은 불신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달 ‘비공개 원칙’과 ‘공개 원칙’을 골자로 한 각기 다른 조례를 상정했으나 공개 여부와 범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관련 조례 모두 보류 결정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상임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개최

2023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생방송 중계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7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12일부터 2일간 예정되어 있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는 17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MBC, KBC 등 지상파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며,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김주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서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정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박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서동욱 의장은 “의원들께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각 안건들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